

# 아함경

에서 건진 지혜 (제46화)



## “호자 나스레딘 이야기”

출전 : 집아함경 제38:1063경:2-276상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옥



옛날 오스만 제국에 나스레딘이란 위대한 호자가 살았습니다. (\*호자= 터키의 랍비)

존경합니다~ 호자님.



나는 초대 받고 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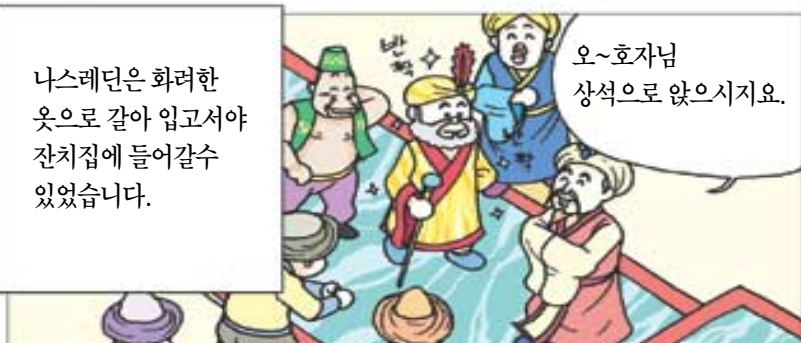
아무래도 옷이 문제 인가 보군.



나스레딘은 어느날 다른 지역 권세가의 잔치에 초대 되었습니다.

문을 여시오~.

누구 십니까.



나스레딘은 화려한 옷으로 갈아 입고서야 잔치집에 들어갈수 있었습니다.

오~호자님 상석으로 앉으시지요.



주인을 만나러 왔소.

주인께서 초라한 자는 잔치에 들어지 말라 하셨지...

오늘은 귀빈이 오시니 다음번에 오슈.



많이 드십시오. 호자님을 위해 이나라 최고의 요리사가 요리를 했습니다.

흠~ 그러지요.



음... 어디 한번 먹어볼까.



호... 호자님. 왜 이리십니까 음식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허허허 이집에 초대받은것은 내가 아니고,

바로 이웃입니다.



.....

그러니 이웃이 음식을 먹는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

어느 야구선수가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했다고 떠들썩하다. 때리지 않았다는 쪽과 맞았다는 쪽의 입장이 팽팽해서 법정까지 가게 될 모양이다. 대립하는 일이 생기면 늘 서로의 주장이 다른 것을 보며 선재는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에 조금씩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 현재로서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야구선수가 힘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인 기자에게 동정의 여론이 움직이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결말은 알 수가 없다. 언론인이 갖는 사회적 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의미에서든 힘이 있는 쪽이 이기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해본다.

폭행 당한 기자

이런 일들을 보면 “원한을 갚되 원한으로 갚지 말라. 원한을 인내로써 갚으면 마침내 원한은 끝나니 이것을 부처님의 법이라 한다”는 <법구경 분노품>의 말씀이 과연 우리 현실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가 하는 회의를 가져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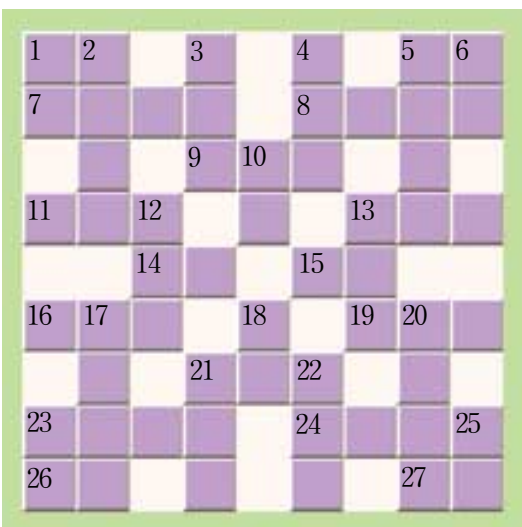
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힘에 따라 좌우될 뿐, 선재가 믿는 부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사바세계일까?

“같이만 몸동이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올바른 지혜에 기초한 방법과 수단으로 악을 멀리 해야 한다.” <대반열반경>의 말씀이다. 일단은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테니 기다려야겠다. “선도(善道) 가운데는 진실한 말의 선도가 제일이며, 모든 병을 치료하는 약 중에 진실한 말의 약이 제일이니라”는 <정법열처경>의 말씀을 선재는 또 읽어보려고 한다.

야구선수에게 맞았다고 소송을 제기해도 저렇게 많은 관심을 갖는데, 경찰에게 맞는 기자들은 왜 제대로 관심을 끌지 못하나요. 원한을 갚되 원한으로 갚지 말라. 원한을 인내로써 갚으면 마침내 원한은 끝나니 이것을 부처님의 법이라 한다”는 <법구경 분노품>의 말씀이 과연 우리 현실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가 하는 회의를 가져본다.

최원섭 (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 상식퍼즐



가로 1. 잘못을 누우쳐 깨달음 5. 연꽃 7. 중생과 자신이 동일체라 보는 불보살의 자비 8. 불교에서 4대(四大)라 말하는 것으로 땅 물 불 바람(한자)에 9. 어떤 일에 해당되는 바로 그 사람 11. 창고를 지키는 사람 13. 전생 이야기 14. 울 듯한 인상 15. 문을 닫음 16. 땅을 파거나 바위 등을 잘라내는 중장비, 포크레인 19. 새 가요의 발표나 노래 경연 등을 하는 행사 21. 공양 시간을 알리기 위해 치는 종 23. 연꽃의 공덕 중 하나로 어디서도 물들지 않고 늘 깨끗함 24. 불제의 각 부분에 작용하는 중력의 합력 작용점 26. 분수를 지켜 도리에 맞게 행동하는 일 27. 삶과 죽음.

<448호> 상식퍼즐 정답

일	미	대	비	각	성
부	증	분	감	구	결
유	독	각	승	양	장
진	법	신	오	오	색
중	심	초	대	회	화
합	상	단	청	산	회
해	회	향	문	자	자
삼	일	수	실	지	극
신	속	죽	기	리	자

세로

1. 먼동이 뜨는 밝을 녘 2. 두 무릎과 두 뺨꿈치, 이마를 땅에 붙여 예배하는 것 3. 불교식 화장을 거행하는 장소 4. 하늘 땅 사람 5. 죽은 뒤에 극락세계의 연화대에 태어하는 것 6. 그림의 경향 10. 본래의 마음 12. 수평면에서 대항 기술이 집의 정도 13. 한 가지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이 나 지식에 가진 사람 17. 머리를 깎고 물들인 옷을 입음, 곧 스님이 입을 의미 18. 가려왔던 것이 떠오름 20.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함 21. 공평하고 율바른 기적 22. 절의 사무를 보는 곳 23. 일을 처리함 25. 깊이 생각함.

# 합격의 행운을 소인성취척척 금강염주

### 합격의 행운을 안겨주는 신비와 영험의 必勝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품에도 최고!



생광광선과 금강의 강한 기가 발산되는 신비의 금강염주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인 사용하시면 됩니다

-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 고시준비 하시는 분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분
-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 연분을 찾고 계신분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 투병중인 분
- 구직을 원하시는 분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 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 됩니다

\*철십이 들어간 12단주를 제작하였으니 기도 정진하시는 스님 및 불자들에게 주문 판매 합니다.

금강의 붉은 지혜와 강한 힘으로 합격의 행운을 안겨주는 신비와 영험의 必勝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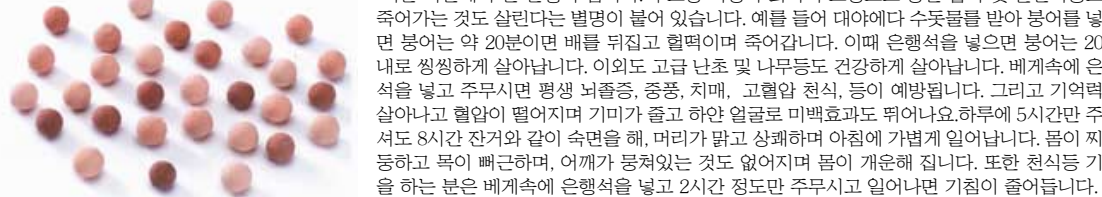
2가지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문의전화 (02)723-0909



# 상쾌한 숙면 건강한 하루 신비의 은행석편지

### 베게속에 넣고 평생 사용으로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생명의 빛 생명의기

문의전화: 금강덕터사 (02)722-1850 ◆농원: 170-12-056037 정애영

# 氣가발산되는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종 유일하게 기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문양이 은은하게 아름다운 흑단무늬목 향로가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종 최고의 명품인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를 수입 하여 한정 판매합니다.

포대화상은 미륵불의 화형으로 숭앙되고 있는 수행자이자 포대화상 향로로 조각하면 화를 쫓고 복과 행운이 오며 사업도 번창하고 소원 성취 할 것입니다. 힘든 세상에 웃음을 주며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을 베풀어주며 불신을 전파하고 포교 활동의 매체가 되도록 기원 합니다. 포대화상 향로는 정교한 조각 예술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해 집니다. 또한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복 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예불에서도 사용할수 있는 최고의 포대화상 향로입니다.

◆크기: (대)가로26cm 폭15cm 높이16cm 가격 155,000원 (소)가로 20cm 폭12cm 높이16cm 가격 95,000원 (수공예품이라 크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2) 3210-3170 / 농원: 1143-12-04974 송명화